

# 관세청, 밀수·불법유통 녹용 일제단속

- 경남 밀양 M 농장 기습 덮쳐 현장확인 -

관세청은 지난 8월23일 금요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동 6층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 오는 8월26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전국의 세관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밀수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외산 녹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달라는 본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법 유통되는 녹용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실례로 관세청은 밀수 및 용도의 유통으로 의심되는 녹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키 위해 지난 9월 6일 본회 사무처 직원과 함께 경남 밀양의 M 농장을 급습했다. 그러나 농장주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 현장을 급습한 관세청 조사팀은 전화를 통해 농장주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농장주는 “법대로 하라”며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농장주의 도피로 현장확인이 어렵게 되자 조사팀은 긴급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농장, 주택,



공장 등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서류와 외국산녹용으로 의심되는 녹용을 압수, 진위여부를 파악키 위해 서울로 이송했다.

관세청은 압수한 레드디어 녹용 상당량이 본인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농장주 부인의 진술에 따라 농장을 확인했으나 레드디어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이를 조사팀이 추궁하자 농장주 부인은 엘크를 가르키며 레드디어라고 진술하는 한편 녹용을 생산하고 레드디어를 모두 팔아치웠다는 등 앞뒤 정황에 맞지 않는 진술들을 반복했다.

관세청은 압수한 서류를 정밀 검토하고 녹용의 외국산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회는 압수한 녹용의 외산 여부를 판정키 위해 녹용 전문가 8명을 초

빙, 외산 여부를 의뢰했으며 이 결과 전문가들은 모두 외산녹용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초빙된 전문가 중 녹용건조 전문가 S씨는 ▲ 톱이 아닌 기계로 절각한 흔적(외국의 경우 기계를 이용해 일률적으로 절각) ▲ 국내에선 보기 힘든 조기 절각 ▲ 농장주 부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올해 생산된 녹용이 아닌 묵은 녹용 ▲ 세척하지 않았음에도 기름기가 전혀 없는 방목형 녹용 ▲ 외산에서만 나타나는 녹용 외형적 특징(털의 생김

새 및 색깔, 녹용 가지 모양 등) 등을 들어 외산녹용으로 판정했다. S씨는 “정밀한 확인 없이도 외산녹용이라는 사실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며 100% 외산녹용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밀수인지 용도의 불법 유통인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본회는 이날 종합된 의견들을 관세청에 제출하는 한편 관세청과 밀수 및 용도의 불법 유통 녹용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단속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국양록**

## 관세청, 추석절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대책 내용

- 추석절대비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에 조사역량 집중
  - 광역수사체제 운영, 인력·장비 상호지원 등 세관의 가용인력, 가용예산 집중투입
  - 해상밀수단속본부 운영강화, 부서간·세관간·유관기관간 합동단속 전개 등 밀수 단속기능을 조직화, 효율화
- 조직밀수 척결
  - 정보수집, 분석 역량을 농수산물 조직밀수 단속에 집중하고 초동단계부터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금융계좌추적, 통제배달, 통신제한 등 특수조사기법활용 등을 통하여 조직밀수 척결
-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로 불법반입 농수산물 철저단속
  - 여행자 휴대품 농산물에 대한 전량개장 검색 및 면세허용량 엄격 준수
  - 자가소비용으로 면세 통과된 휴대농산물의 상용행위 및 수집상·판매상 집중단속
- 시중유통경로 단속강화로 밀수수요 차단
  - 밀수 농수축산물의 수집상, 집하소 등 밀수품 매개경로 파악하여 불시단속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최초 수입조건과 다른 용도로 불법 판매되는 물품도 철저단속
- 밀수단속본부 중심으로 활동 강화
  - 밀수단속본부 설치운영(5개 본부세관)
  - 기획조사와 연계하여 우범물품 집중감시 병행
  - 육·해상 감시강화로 밀수품 반입경로 적극 차단
- 대국민 홍보강화로 밀수기도 사전차단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 농림부, 경찰, 농·수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 실시
  - 유관 민간단체의 협력유도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강구
  - 밀수신고요령 등의 홍보강화로 밀수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
- 신고전화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25